

현 경제상황 평가 및 주요 과제

2006. 5. 19

재정경제부

< 목 차 >

I. 최근 경제상황 평가	1
1. 최근 경제동향	1
2. 평가	6
II. 현 경제상황 인식 및 향후 과제	7
1. 경기회복세의 장기지속성 유지	7
(1) 안정적 소비 증가세 유지	8
(2) 설비투자 활성화	10
(3) 건설투자 보완	12
2. 대외여건 변화에의 대응	13
(1) 고유가 추세	13
(2) 환율 하락	16
3. 성장잠재력 둔화에의 대응	18
4. 양극화 및 저출산·고령화 대응	20
III. 종합 평가 및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	22
1. 종합 평가	22
2.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	23

I. 최근 경제상황 평가

1. 최근 경제동향

- ◇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중 경기저점에서 벗어나 민간소비 등 내수와 수출을 바탕으로 회복세를 지속
 - 다만, 국제유가·환율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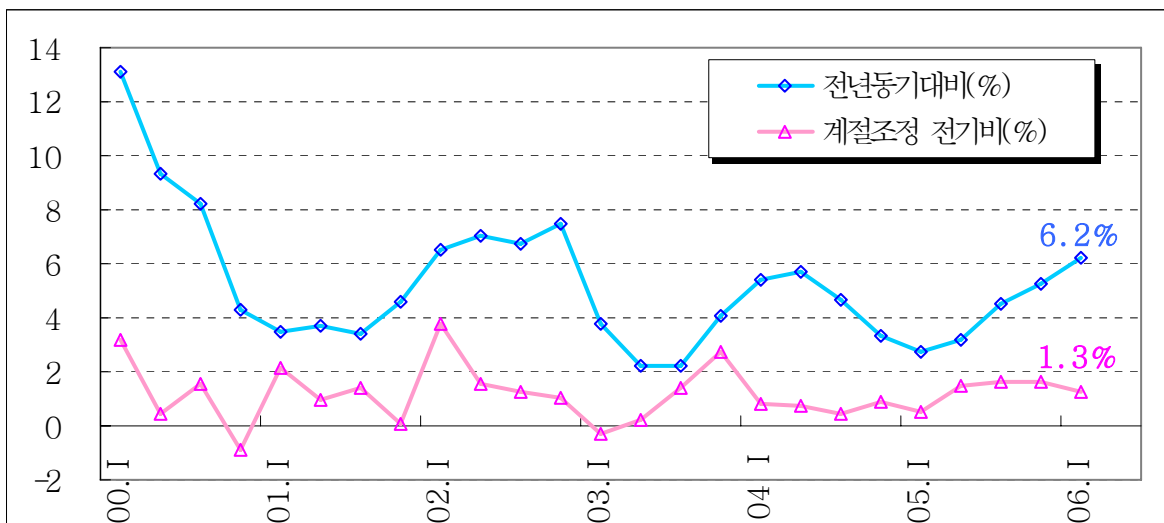
(1) 성장 :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잠재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

① 2003년 이후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잠재 수준(5% 내외)을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이었으나,

-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비 등 내수회복과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
- 금년 1/4분기 실질 GDP(속보치)는 전년동기 대비 6.2%, 계절조정 전기비 1.3%(연률 환산시 5.1%) 증가

* 전년동기대비(%):(05.1/4)2.7→(2/4)3.2→(3/4)4.5→(4/4)5.3→(06.1/4)6.2
계절조정 전기비(%):(05.1/4)0.5→(2/4)1.4→(3/4)1.6→(4/4)1.6→(06.1/4)1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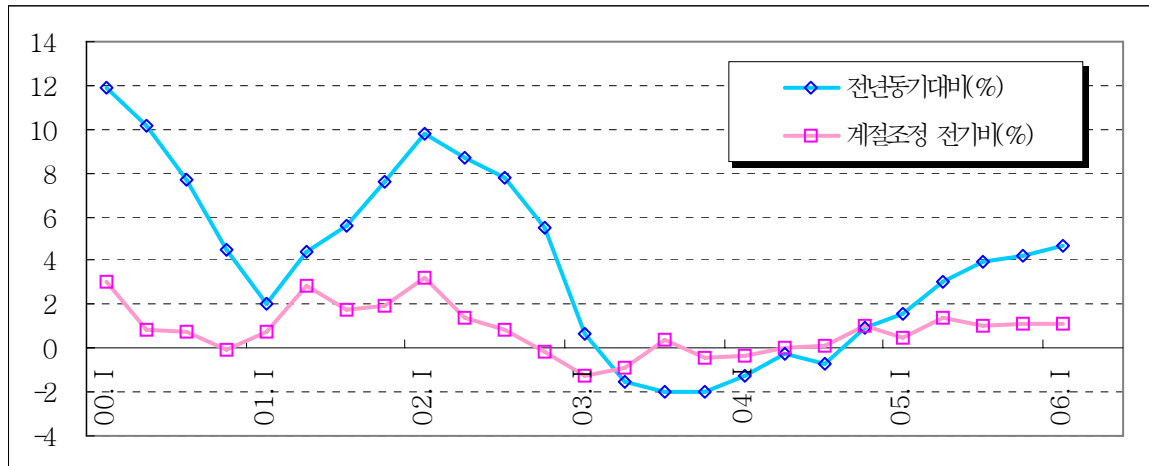
실질 성장률 추이



② 민간소비는 2001~02년중 급증한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회복세를 지속

- 금년 1/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4.7%(계절조정 전기비 1.2%) 증가하는 등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꾸준히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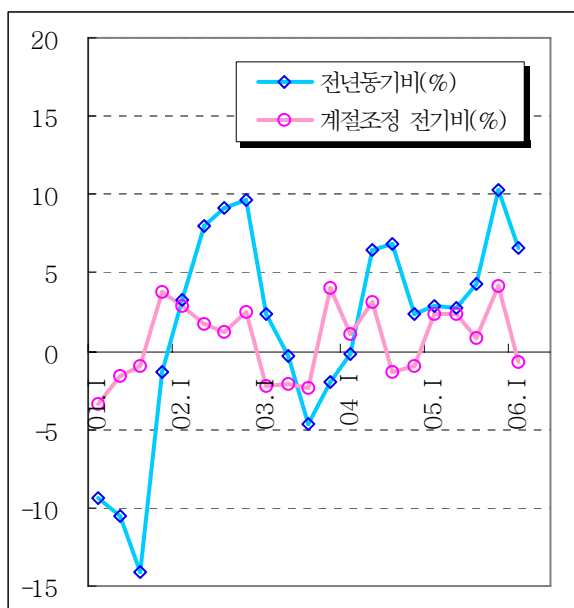
민간소비 증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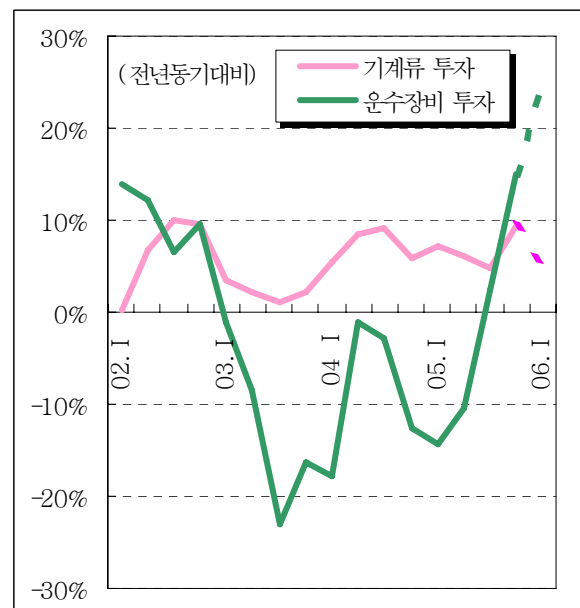
③ 설비투자는 내수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 (금년 1/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.6% 증가)

- 특히, 그간 부진의 주요인이었던 운수장비 투자(05년 설비 투자대비 비중 17%)가 민간소비 회복을 반영하여 큰 폭 증가

설비투자 증가 추이



자본재 형태별 증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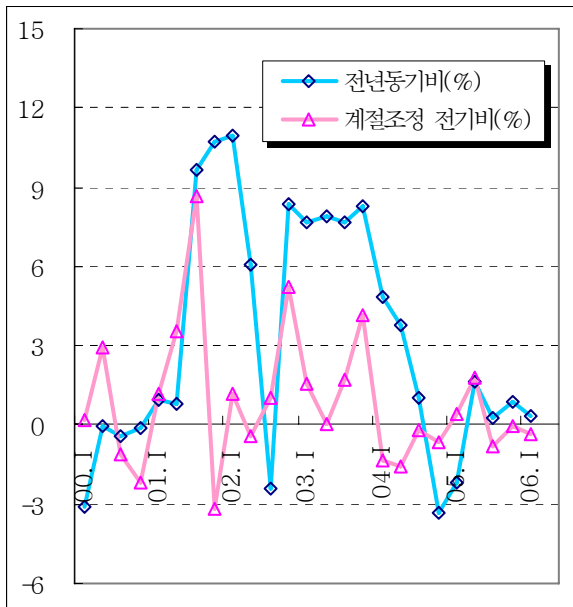


<註> 06년 1/4분기 기계류 및 운수장비 투자는 재경부 추정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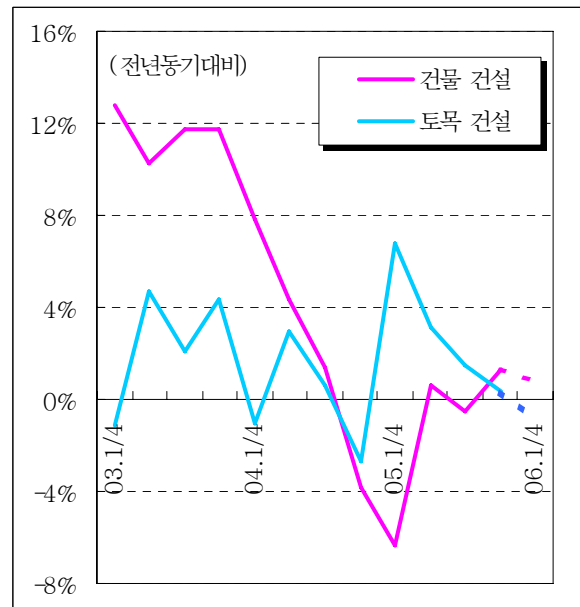
④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순환주기상 위축국면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 (금년 1/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.3% 증가에 그침)

○ 공종별로는 건물·토목 모두 전년수준에서 유지 (05년 건설 투자대비 건물건설 비중은 60%, 토목건설 비중은 40%)

건설투자 증가 추이



공종별 증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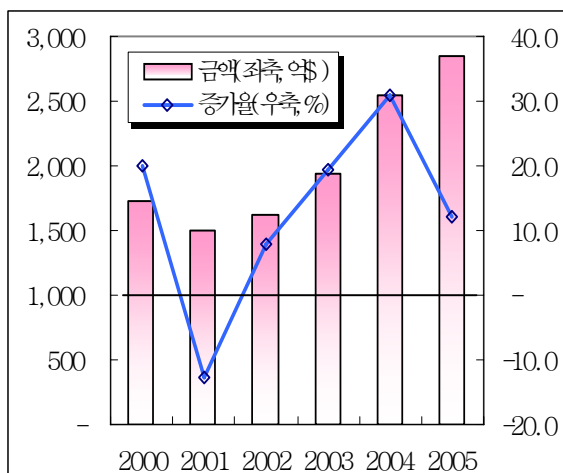


<註> 06년 1/4분기 공종별 추이는 재경부 추정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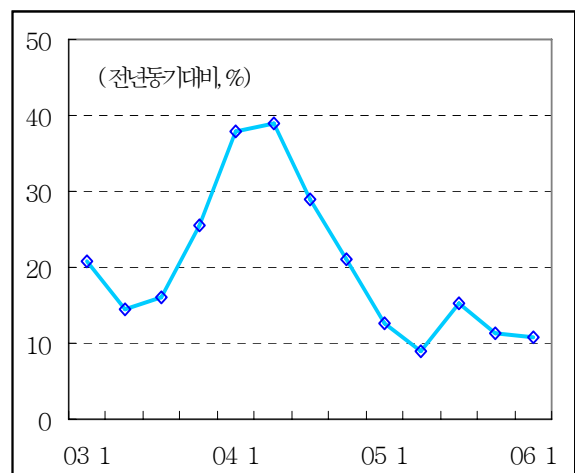
⑤ 수출(통관 기준)은 2003년 이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

○ 특히, 지난해 이후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해외수요 호조에 힘입어 두자리수 증가세 유지 (금년 1/4분기중 10.7%, 4월 12.6% 증가)

수출 추이(00~05년, 연간)



수출 증가율(03~06, 분기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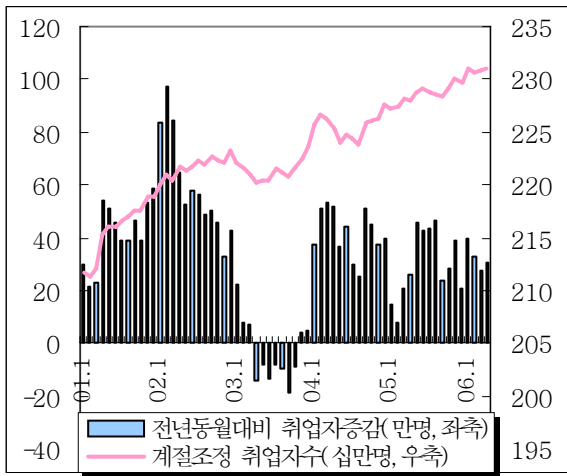
(2) 고용 : 추세수준의 취업자 증가세 유지

① 취업자는 2003년중 3만명 감소에 이어 04년중 42만명이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나, 2005년 2/4분기 이후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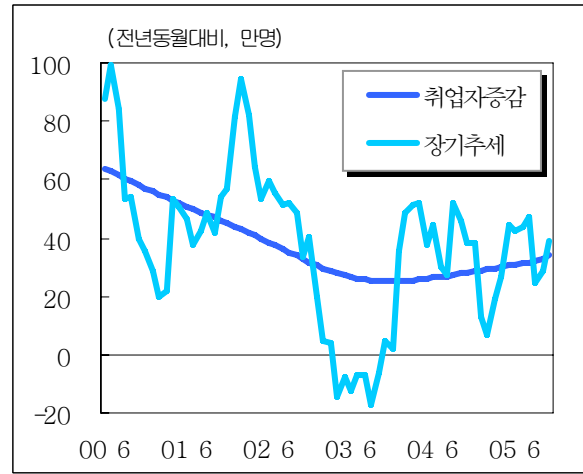
○ 금년의 경우 추세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당초 전망(35~40만명)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

* 취업자증가(만명) : (05.1/4)14→(2/4)38→(3/4)38→(4/4)29→(06.1/4)33→(4)31

취업자 증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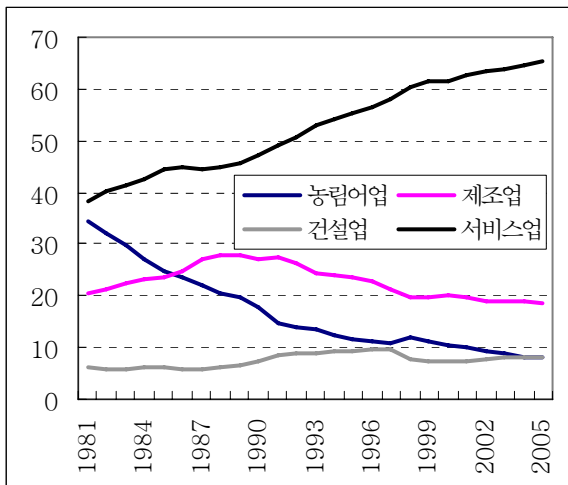


취업자 증가 장기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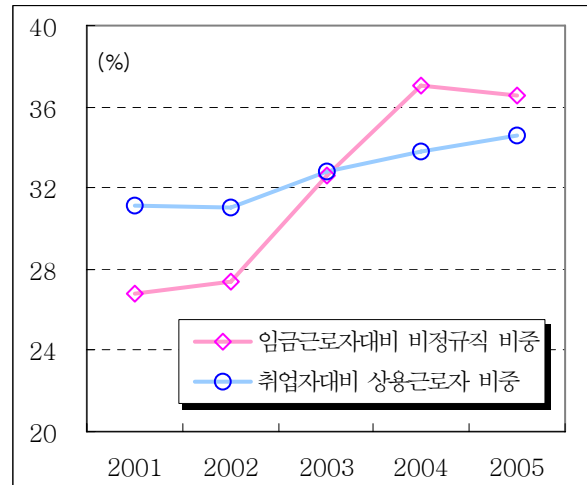


○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, 서비스업이 신규 고용창출원으로 역할

산업별 고용비중



고용의 질 추이



② 고용의 질은 2004년까지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악화되었으나, 05년 이후 비정규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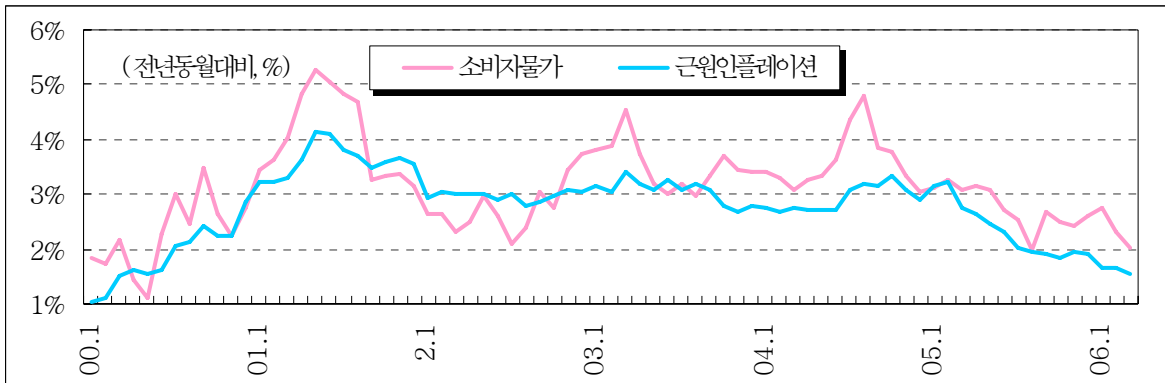
(3) 물가 : 지난해 이후 하향안정추세 지속

① 소비자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2%대 상승 (금년 1/4분기 2.3%)

○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농산물가격도 안정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

② 근원물가(석유류·농산물 제외)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1%대의 안정세 (금년 1/4분기중 1.7%)

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



(4) 경상수지 :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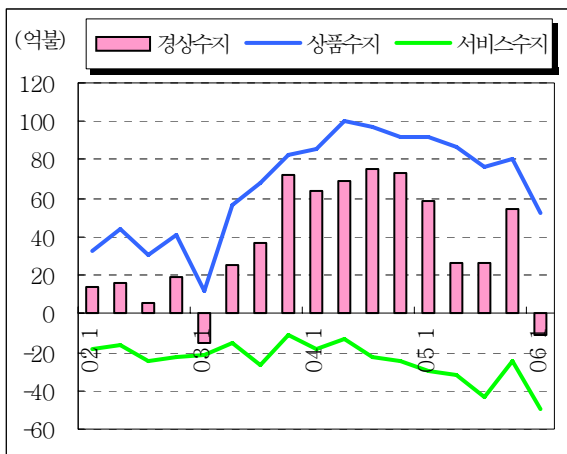
① 경상수지는 2003~05년중 큰 폭의 흑자기조를 시현

* 경상수지(억불) : (02)53.9→(03)119.5→(04)281.7→(05)165.6
 (GDP대비비중,%) : (02)1.0→(03)2.0→(04)4.1→(05)2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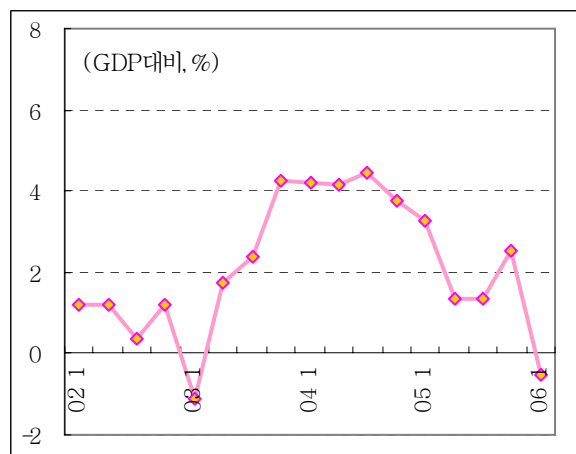
② 금년 1/4분기에는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 (△10.6억불)

○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급등,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된 반면,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

경상수지 추이(금액)



경상수지 추이(GDP대비,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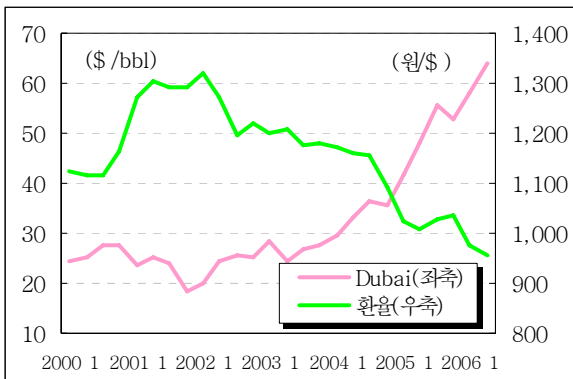
2. 평가

① 경제의 회복흐름이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으나,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, 환율도 빠르게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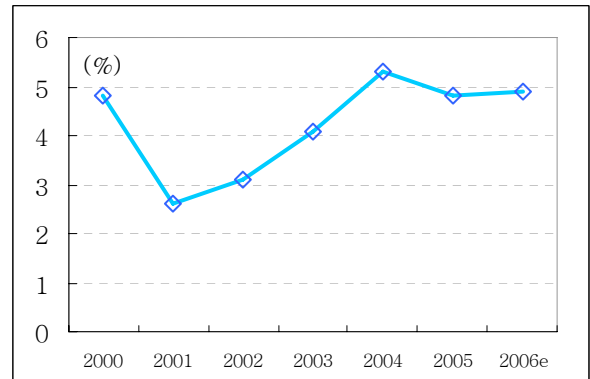
○ 그러나, 내수경기 회복세가 견조하고 세계경기 호조* 등으로 수출전망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금년중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를 어느정도 흡수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 지속 전망

* 최근 IMF는 높은 유가전제(06년 연평균 61\$)에도 불구하고 금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.3%에서 4.9%로 상향조정

유가·환율 추이



세계경제 성장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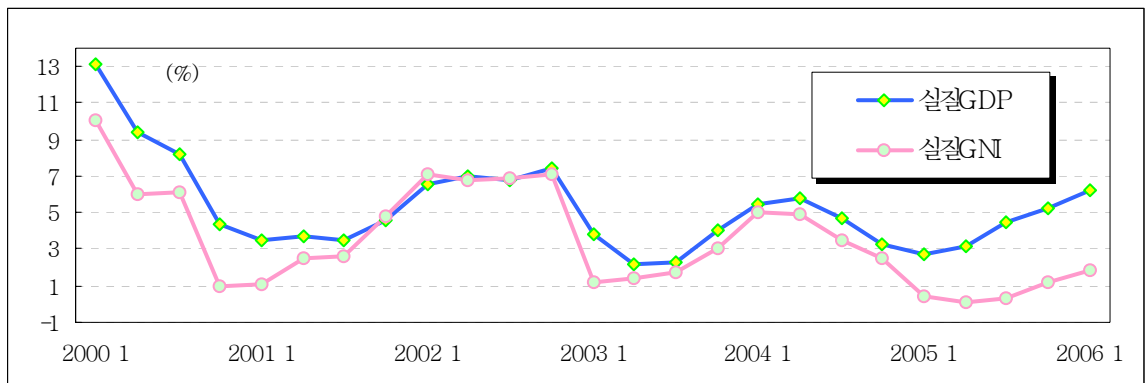


② 다만, 전체적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다소 강하여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에 영향을 줄 소지

○ 고유가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로 소비·투자 여력이 축소

○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가 점차 수출 물량으로 반영될 가능성

실질 GDP와 실질 GNI 증가율 추이



Ⅱ. 현 경제상황 인식 및 향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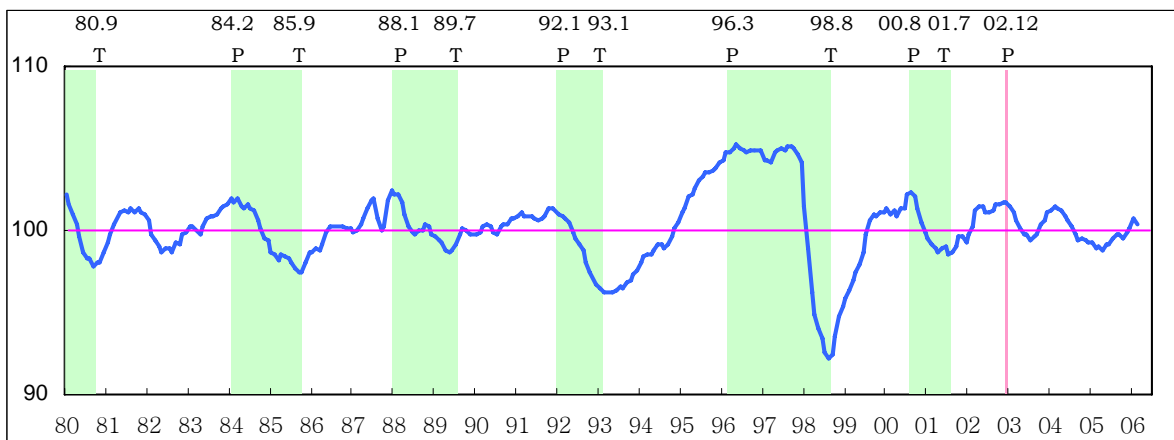
1. 경기회복세의 장기지속성 유지

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세 지속능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

○ 경기순환주기 단축¹과 함께, 2003~04년중에는 소위 더블 딥(Double-dip) 현상²도 발생

- 1」 외환위기전 제 7 순환기까지 경기확장국면의 평균지속기간이 33개월이었으나, 다음 제 8 순환기(01.7-03.7)에는 그 기간이 17개월로 단축
2」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상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단기간 이내에 다시 하강하는 현상을 지칭

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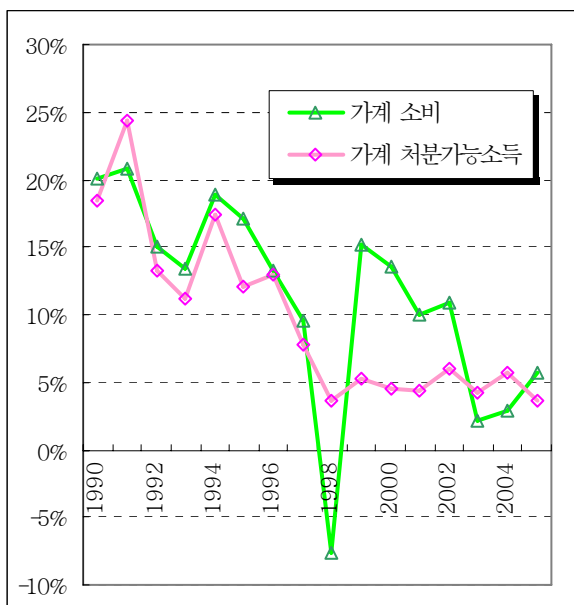
② 현재의 경기회복추세가 단기간내에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, 유가·환율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시간을 두고 가시화될 소지

- “인플레이 없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”를 최대한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
○ 소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, 투자활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노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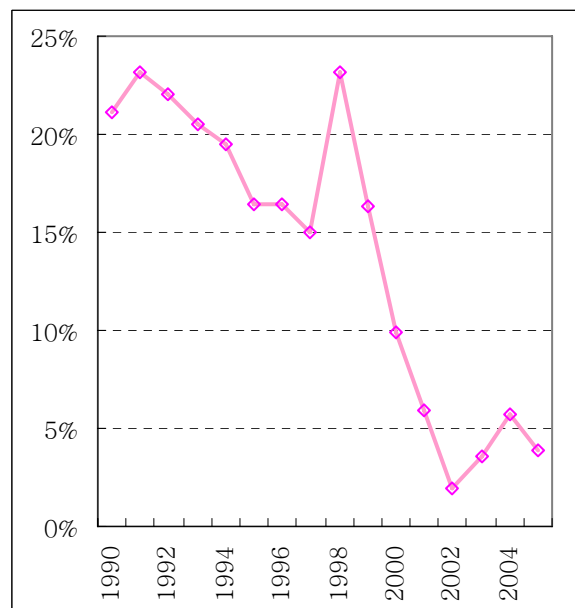
(1) 안정적인 소비 증가세 유지

- ① 잠재수준인 5%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GDP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가 필요
 - 2003~05년중 3~4%대의 저성장이 계속된 것은 2001~02년간의 신용카드 등에 의존한 과잉소비 부작용으로 민간소비가 사상 처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
 - ②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, 이러한 회복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
 - 작년의 경우 소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가계 저축률이 3.9%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(가계저축률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비 조정 소지)
- * 주요국 가계 저축률(% , 03년) : 헝가리 17.3, 프랑스 11.1, 독일 10.7, 이태리 10.5, 아일랜드 8.3, 일본 6.3, 미국 1.4

가계소득과 소비(명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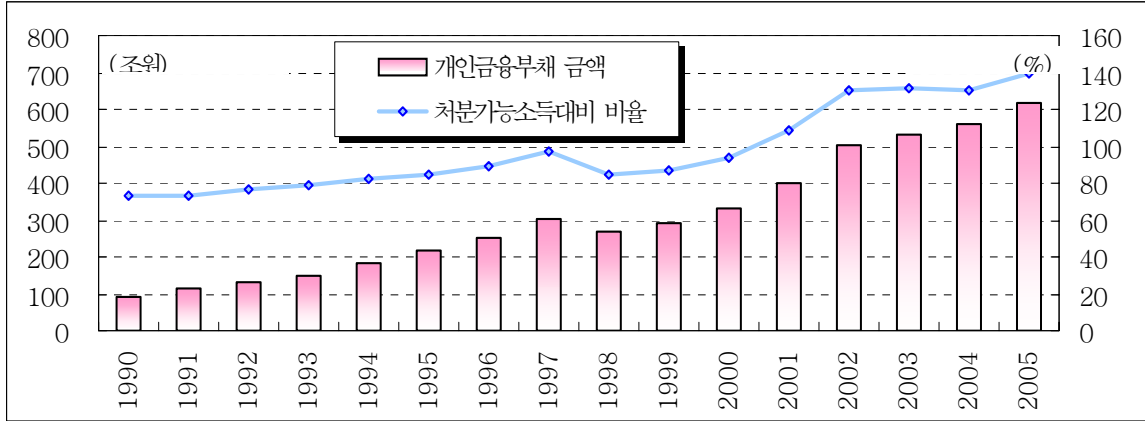
가계저축률 추이



- 또한, 2003~04년중 130%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던 처분가능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2005년 140%까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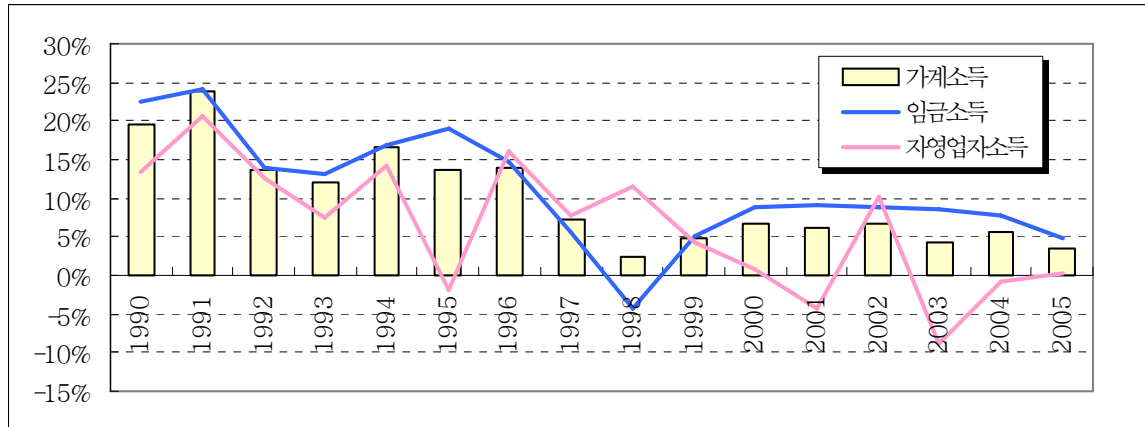
* 가계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: 미국(04년) 125.3, 일본(03년) 132.1

가계금융부채비율 추이



- ③ 안정적 소비 증가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그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던 가계 소득여건을 확충하는 데 주력

가계소득 증가 추이(명목기준)



- 기업투자 활성화,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임금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,
- 낮은 생산성 등으로 경영여건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

* 특히, 재래시장 현대화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,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훈련 등을 확대

(2) 설비투자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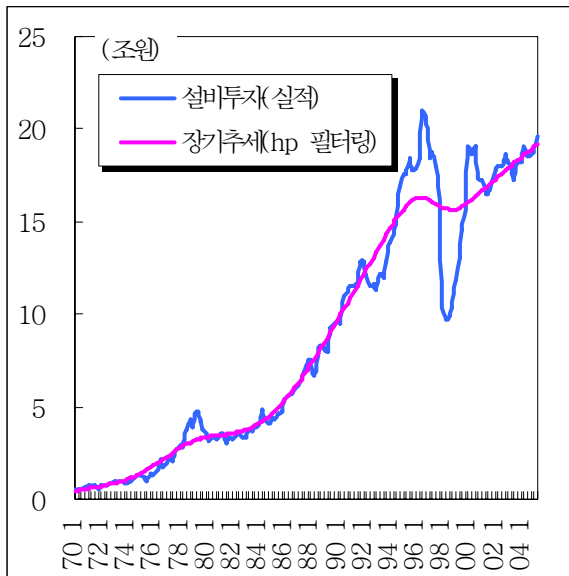
①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

* 설비투자 증가율(연평균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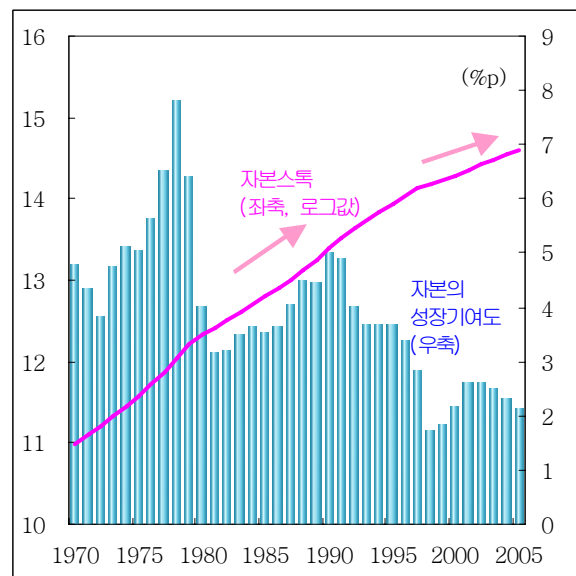
: (71~80)19.6 → (81~90)12.1 → (91~96)11.1 → (01~05)1.1

- 이는 경기상승국면의 지속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본축적 둔화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

설비투자 장기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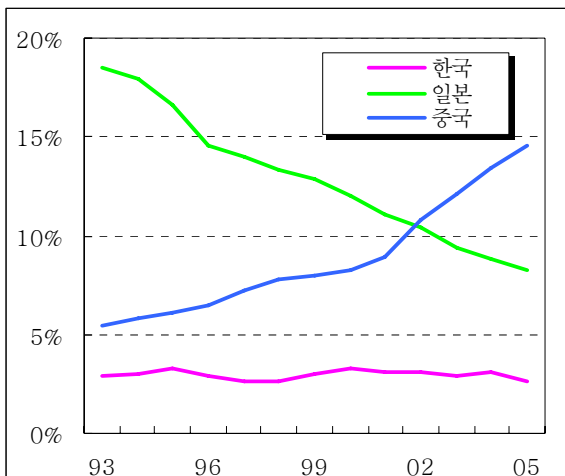
자본축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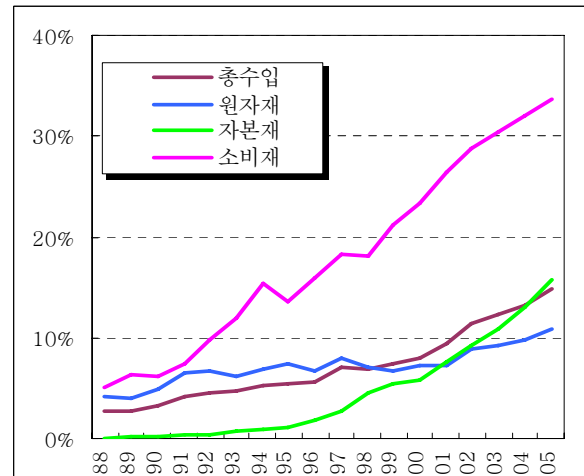
② 내수회복을 반영 설비투자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여 큰 폭 개선에 한계

- ① 중국의 국내외 시장침투 확대는 기업(특히, 중소·수출기업) 채산성을 악화시켜 투자위축요인으로 작용

미국시장 점유율 추이



중국수입 비중 추이(우리나라)



② 경제성숙화 등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형 창출 여건이 미흡

- 특히, R&D 투자가 전자·통신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어려움

* 주요국 첨단 업종별 R&D 지출 점유비중 (00년 기준, %)

	한국	미국	일본	독일	영국
· 전자·통신 기기	43.8	19.9	19.8	11.1	11.1
· 첨단 업종 전체	58.7	60.7	44.0	33.1	60.1
· 제조업 전체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<자료> NSF,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4

③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위험회피 경향이 커지고 경영행태가 보수화되면서 설비투자성향이 하락

* 상장기업 영업이익대비 설비투자 비중(%) : (90~99년)158 → (00~05년)84

④ 고지가, 노동시장 유연성 미흡 등으로 투자 실패시 퇴출비용(exit-cost)이 상승하는 등 기업의 신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완충시켜줄 경제·사회적 여건이 미흡

* 우리나라와 중국의 생산비 관련 지표 (2003년 기준)

	한국	중국
· 산업단지 분양가(천원/평)	509 (100.0)	116 (23)
· 제조업 시간당 임금(달러)	9.62 (100.0)	0.66 (6.9)
· 단위노동비용	0.58 (100.0)	0.15 (25.9)

<註> ()내는 우리나라를 100으로 환산했을 경우 비교수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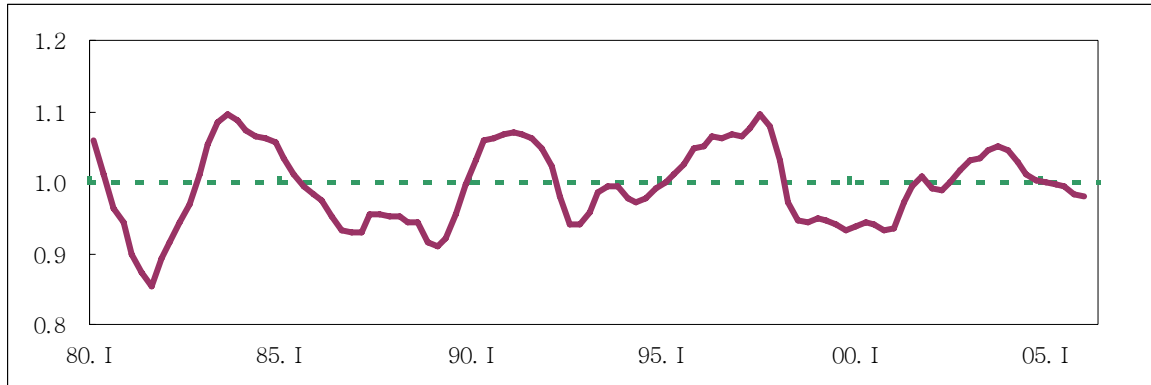
③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혁신형 중소·벤처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,

○ 규제혁신,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,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투자확대 여건 조성 노력을 가속화

(3) 건설투자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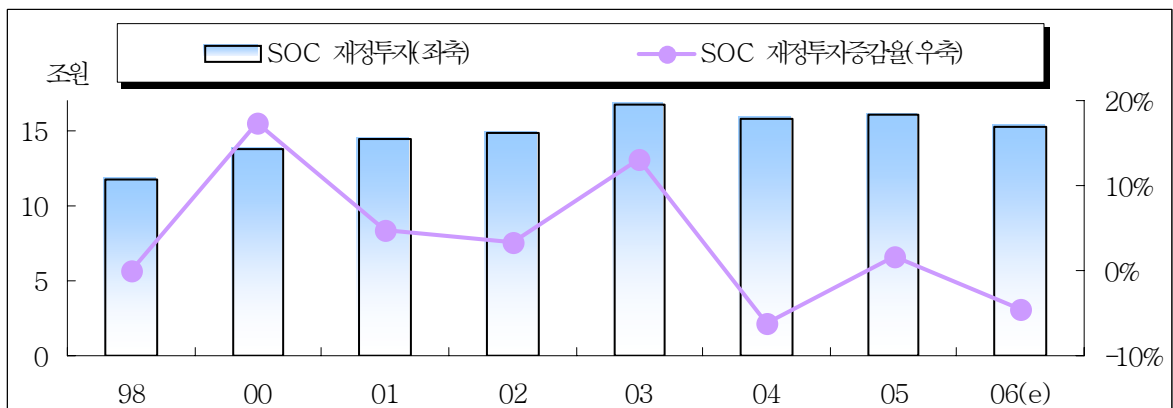
- ①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순환주기상 하강국면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 (2004년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 진입)

건설투자 순환변동치 추이



- ② 향후 건설경기 여건을 점검해 보면

- 건설경기 순환주기(5년 내외)상 빠르면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초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
- 다만, 부동산대책의 영향, 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 둔화는 건설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

- ③ 재정효율화를 위해 감축이 불가피한 SOC 재정투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BTL 등 민자유치 확대노력을 추진중

* BTL 투자계획(05.3) : 2005~07년간 24.1조원 투자협약 체결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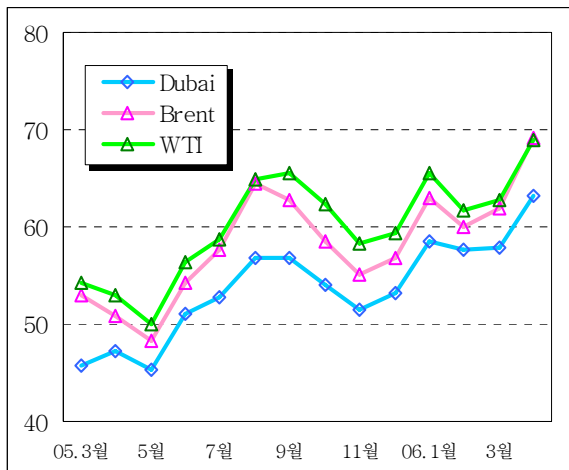
2. 대외여건 변화에의 대응

(1) 고유가 추세와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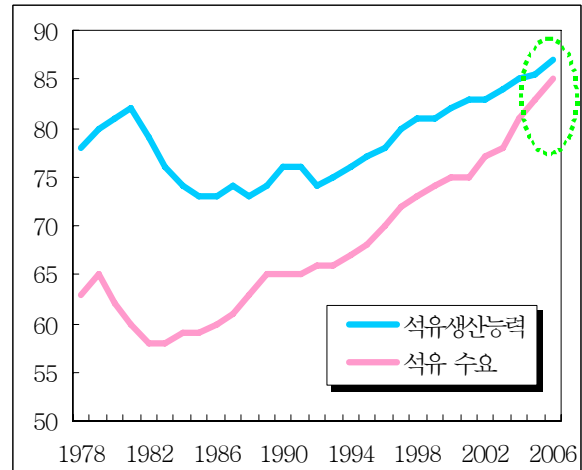
① 최근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큰 폭 상승

- 구조적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문제 등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
- 이란 사태가 악화되거나 허리케인 등으로 일부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 급등 소지도 상존

국제유가 추이(월평균, \$/bbl)



석유 생산능력 및 수요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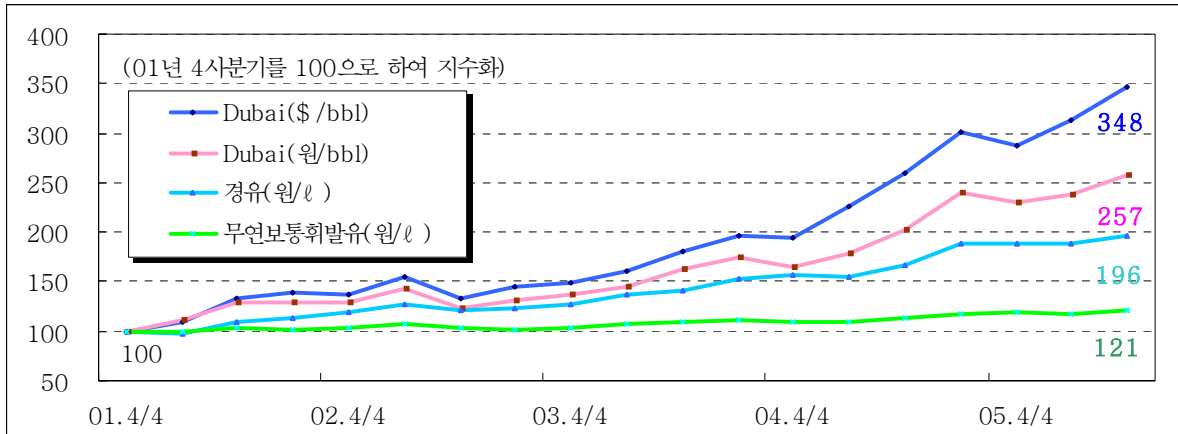
②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, 경상수지 악화, 가계와 기업의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남

※ 국제유가와 환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차적인 경제적 효과를 시사

- 국내 휘발유가격 : 환율 하락 및 유류세에 의한 국내가격 완충 효과* 등을 감안하면 약 5% 정도 상승요인으로 작용

* 휘발유 가격의 60% 정도가 교통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휘발유가격 변동률은 국제유가 변동의 약 1/4~1/5 수준이나, 유종별로는 세금 비중 등에 따라 가격 상승률에 차이

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추이



- 경상수지와 가계·기업의 부담 : 원유수입액 증가규모는 90억달러 수준* 예상되며, 이는 가계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

* 2005년 원유도입물량(8.4억 배럴) × 금년중 유가상승분(배럴당 11\$)

※ 다만, 중동경기 호조에 따른 플랜트 수출·건설수주 증가(40억불 내외) 등 경상수지 개선효과 기대

- ③ 가계와 기업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1차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소비와 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효과가 파급

- 환율하락과 함께 나타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부분 상쇄되나, 실질구매력 위축에 따라 소비·투자가 둔화되면서 성장에 부정적 영향

* 국제유가 10% 상승시 성장률 0.2%p 하락, 소비자물가 0.2%p 상승 (한은)

- 특히,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와 소득지표간 괴리를 유발하여 체감경기 부진 및 내수회복세 지속에 부담요인

- ④ 그간 유가충격에 대한 경제의 흡수능력이 향상되었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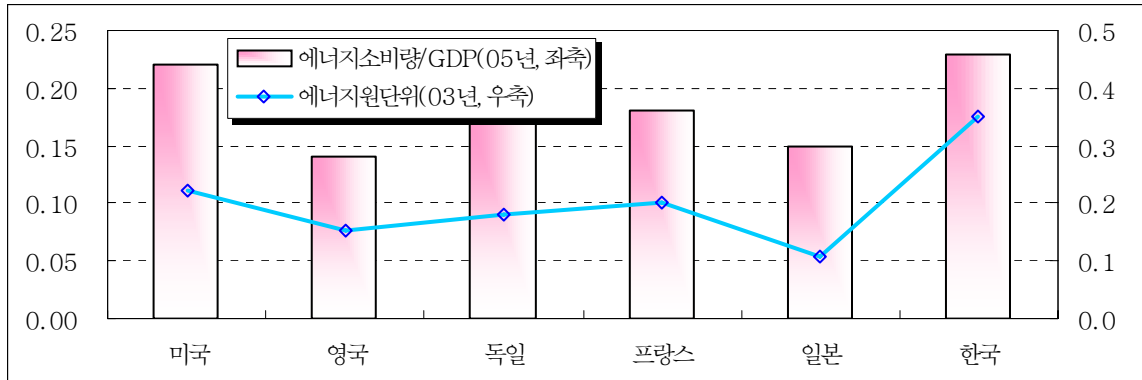
* 에너지소비 대비 석유류 비중(%) : (80)61→(90)54→(00)52→(05)44

* 에너지원단위(TOE/백만원) (90)0.354→(00)0.403→(05)0.318

- 고유가 장기화시 석유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 예상

*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세계 20위로 산유국 제외시 10위 이내 <출처> 영국 British Petrol(2004년 기준, 조사대상국 60개국)

에너지 효율성 국제비교



<출처>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,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('05)

5 유가 충격이 경제에 큰 무리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민간의 합리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,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적·전략적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

- **현단계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미시적 차원에서 대응하되 고유가 장기화 등 여건 크게 악화시 거시정책 기조 재점검**
- **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「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」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**

* 「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('05~'07)」을 「에너지원단위개선 중·장기 계획」으로 발전, 수소·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 노력 강화 등

- **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채널 강화와 함께,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 등 적극 추진**
- **한편, 오일 머니 급증으로 중동지역 경제가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노력도 병행**

	03년	04년	05년	06년 전망
對중동 플랜트수출(억불)	24.6	34.6	84.1	100
(증가율, %)		(△42.5)	(40.7)	(143.1)
중동지역 건설수주(억불)	22.6	35.7	64.4	85.0
(증가율, %)		(△27.3)	(58.0)	(80.3)

<자료> 산자부, 건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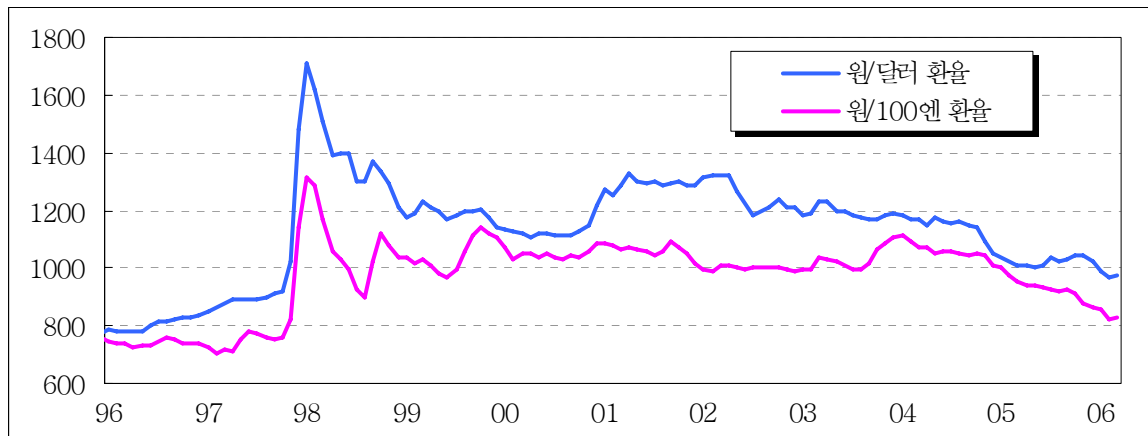
(2) 환율 하락과 대응

① 원/달러 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다른 통화에 비해 하락폭이 커서 원/엔 비율이 과거 10:1에서 최근에는 8:1 수준(4.20일 : 100엔/806원)에 근접

- 특히, 금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달러약세 요인*이 부각되면서 원/달러 환율이 한 때 920원대까지 큰 폭 하락하였으나, 최근 940원 내외로 다소 반등

* G7의 중국 등 아시아권 환율절상 촉구 · 미국 금리인상 종료 기대로 美로의 자본유입 축소예상 · 美 쌍둥이적자 문제 부각 등

원화 환율 추이



② 환율 하락은 수출재 달러기준 가격 상승 · 수입재 원화기준 가격 하락을 통해 내수와 수출 · 입, 물가, 경상수지 및 기업 수익성 등에 영향

- 단기적으로 순수출위축효과가 커서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수입물가 하락 등에 따라 중기적으로 내수에 도움이 되는 측면

* 환율 5% 하락시 성장률 0.3%p 하락, 소비자물가 0.2%p 하락, 경상수지 27억불 악화 (한은)

- 기업 채산성에 대해서는 악화요인¹⁾으로 작용하나, 업종별로 그 영향이 상이²⁾

1) 환율 5% 하락시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약 1.5%p 하락 추정

2) 내수업종과 수입재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는 개선요인으로 작용

③ 최근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,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달러공급 초과에 따른 것이나, 일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

- 우리의 외환시장 규모가 아직 협소하여 외부충격·환투기 등 발생시 시장참여자의 군집행동(herd behavior)으로 환율이 과잉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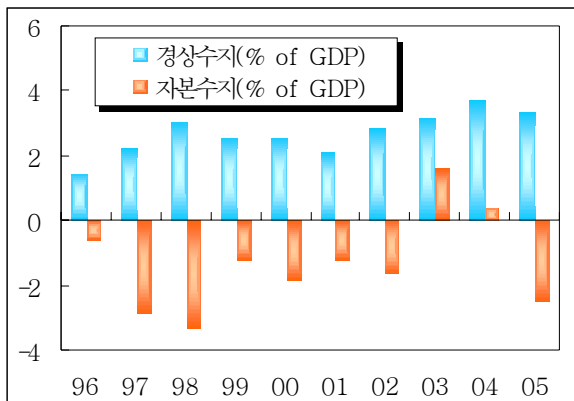
외환시장 일평균거래액 비교 (04.4월)

	한국	홍콩	싱가폴	일본	미국	영국
일평균 외환거래(10억불)	20	102	125	199	461	753
무역규모 대비(%)	5.4	22.4	43.7	25.1	23.3	108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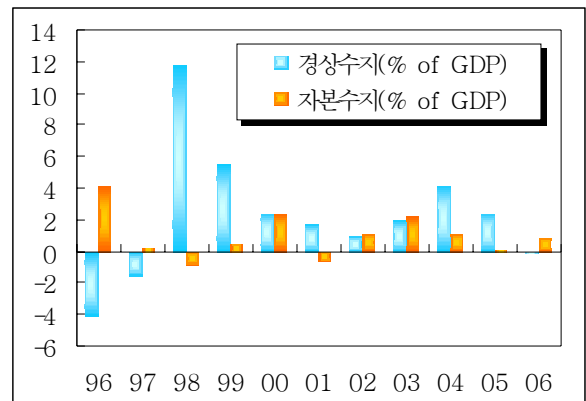
- 최근 해외투자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투자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는 측면

※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자본수지 적자로 상쇄되고 있는데 반해, 우리나라는 경상·자본수지가 모두 흑자

일본



우리나라



④ 비정상적인 교란요인에 대한 단기 안정노력과 함께, 중장기적으로 외환수급 균형화 노력을 강화

- 국내외 수급요인, 글로벌 환율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안정 노력 지속

-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장기적 수급안정 노력을 병행 추진

* 원화의 국제화, 외환거래 자유화,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“외환자유화 추진방안” 발표(06.5.19)

- 환위험 변동 완화 등 기업의 단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 노력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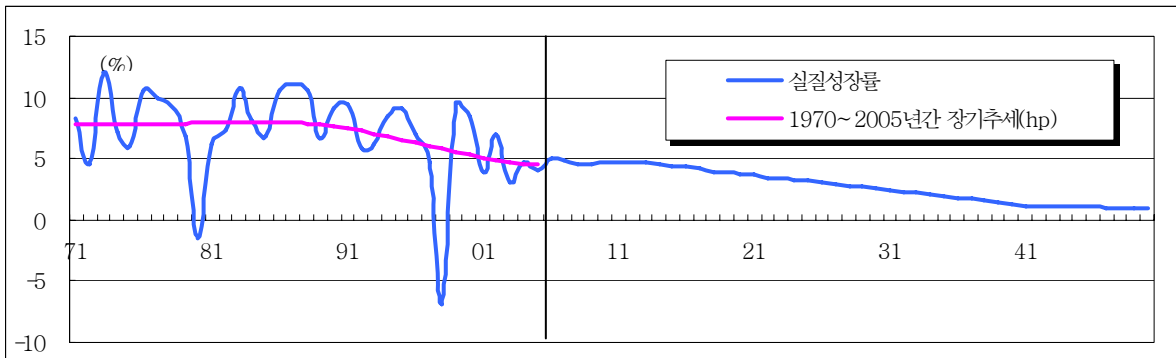
3. 성장잠재력 둔화에의 대응

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성숙화, 고령화·저출산 등에 따라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

* 2050년까지의 성장 전망(% , 거시경제 T/F, 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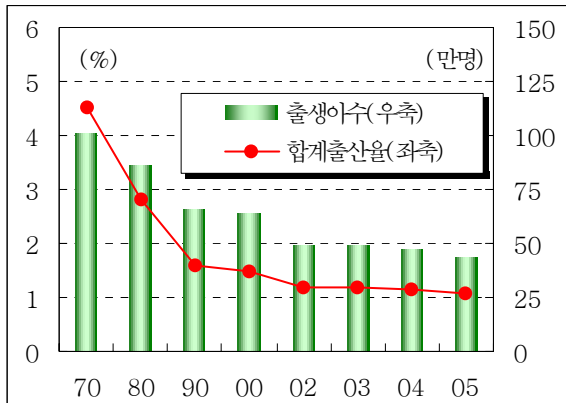
	2006~10	2011~20	2021~30	2031~40	2041~50
▪ 잠재성장률	4.9	4.4	2.8	1.8	1.4
▪ 1인당 GDP	3.7	3.7	2.7	2.2	2.3

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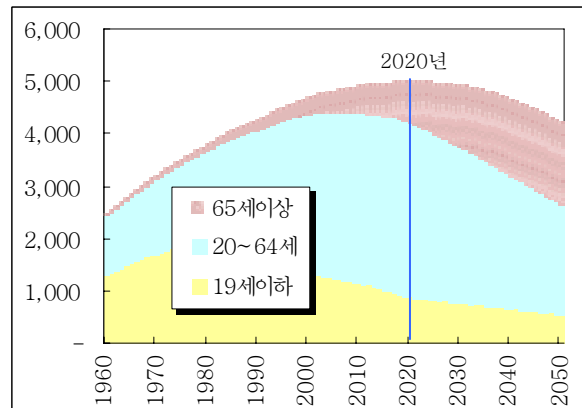


○ 특히,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의 성장기여 둔화가 뚜렷해지는 등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에 직면

출산률 추이



우리나라 인구전망



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, 2000년대 이후 생산성 향상도 부진한 모습

1980년 이후 요소별 성장기여도 변화(단위:%)

기간	GDP 증가율	성장 기여도			
		취업자수	인적자본	물적자본	TFP
1981-1990	8.73	1.91	0.79	3.28	2.76
1991-1995	7.81	1.66	0.97	3.15	2.03
2001-2003	4.62	1.04	1.06	1.51	1.01

* 자료: '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', KDI, 2004(95년 기준 자료를 2000년 기준으로 재산정)

- 이는 그간의 인적투자 및 R&D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이 낮은 가운데

* GDP대비 R&D 비중과 R&D의 성장기여율

	한 국	미 국
▪ GDP대비 R&D 비중	2.9%	2.6%
▪ R&D의 성장기여율	10.9%	40.2%

<출처> 한은 :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(05.8)

- 진입장벽과 규제 등으로 개방이 되지 않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(90년대 이후 생산성 기여도가 ⊖)하고 있기 때문임

업종별 성장 기여도 (단위 : %, %p)

	1975~80		1981~90		1991~00	
	제조업	서비스업	제조업	서비스업	제조업	서비스업
· 성장률	12.20	7.21	10.58	8.27	7.97	5.34
- 노동·자본 기여도	5.61	8.56	5.62	6.54	3.14	5.47
- 생산성 기여도	6.59	△1.35	4.96	1.73	4.83	△0.13

③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요소투입 둔화를 최소화하는 한편, 생산성 위주의 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노력을 가속화

-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출산율 제고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등 자본 투입 확대 노력을 강화
- 투입요소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혁신, 평생교육체제 확립 등 인적자본 확충 및 유망 중소기업,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저변의 혁신역량 확충에 노력
- 동시다발적 FTA 등 개방과 경쟁의 확산과 함께, 시스템 선진화*를 통해 경제의 총체적인 생산 효율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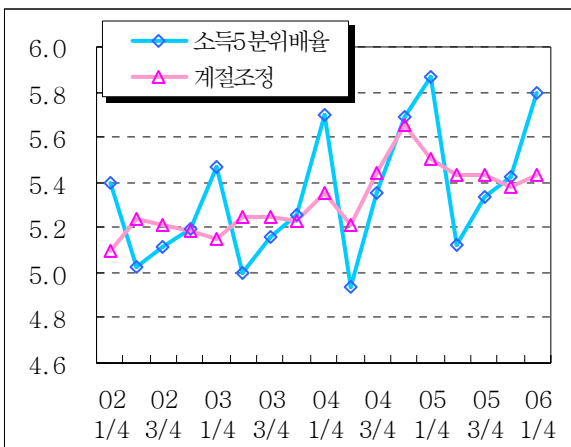
* 금융규제 개혁, 시장 선진화 등 금융·외환제도 혁신,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

4. 양극화 및 저출산·고령화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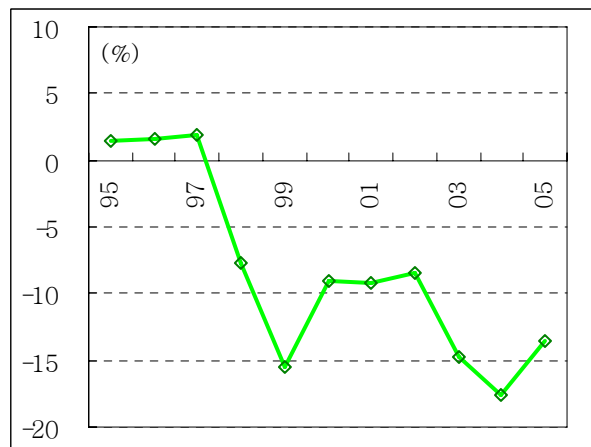
①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·정보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왔으며 2003년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심화

- 지난해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, 빈곤층 적자율이 여전히 10%를 상회하는 등 개선정도는 미흡

소득 격차의 확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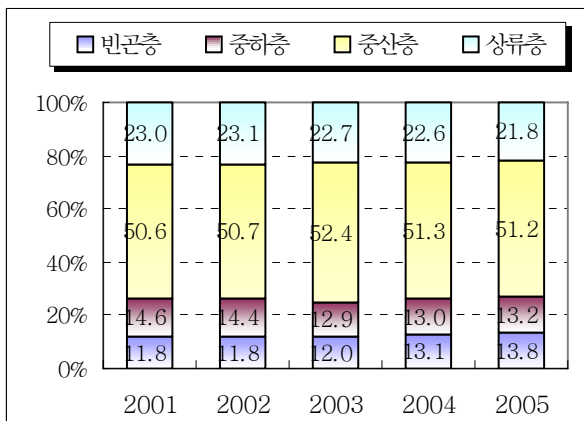
소득1분위(하위20%) 흑자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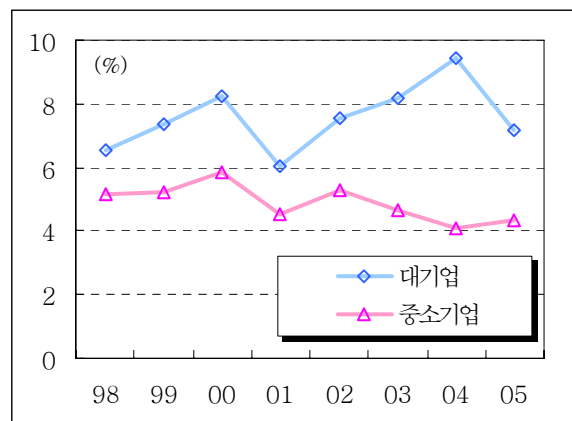
- 소득계층별 분포를 볼 때에도 중산층이 좁어지고, 빈곤층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

- 대·중소기업간 격차는 최근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나, 아직도 격차가 지속

소득계층별 분포 추이



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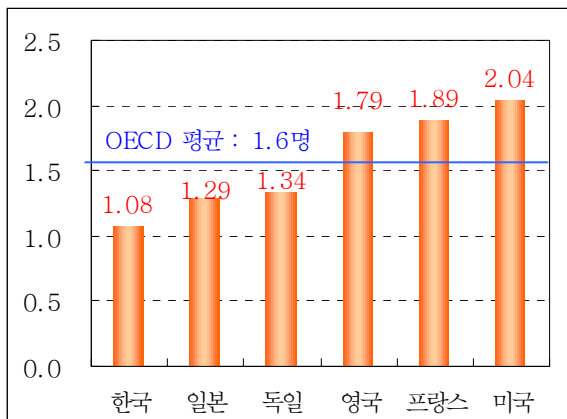


<註> 소득계층별 분류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중간값(median)의 150% 이상을 상류층, 70~150%를 중산층, 50~70%를 중하층, 50%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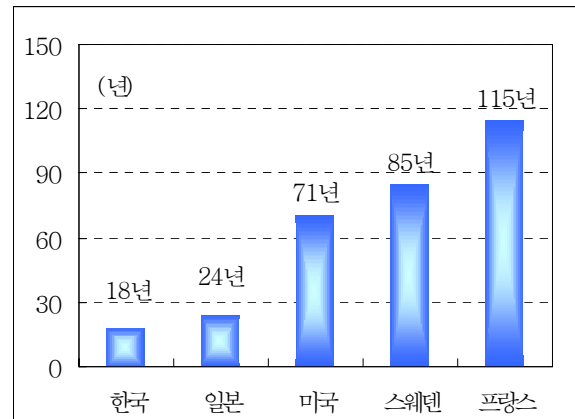
② 저출산·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래위험요인들이 점차 가시화

- **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,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7%를 초과(고령화 사회)한 데 이어 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속도로 인구 노령화 진행 예상**

합계출산률 국제비교



고령화사회→고령사회 소요기간



<주> 합계출산률은 한국 05년, 일본과 영국 04년, 여타국 03년 기준,
 고령화 사회 : 노인인구비율 7%, 고령사회 : 노인인구비율 14%

③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양극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, 미래 위험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

- 개방과 경쟁의 확산과정에서 **탈락·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노력 강화**
 - 교육훈련 등 근로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능력 없는 취약계층의 생계·의료·주거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
 - 중소기업 창업·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,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 구축 유도
- **공적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, “희망한국 21”을 중심으로 저출산·고령화 대응 노력을 강화**

Ⅲ. 종합 평가 및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추진 계획

1. 종합 평가

①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, 최근 유가·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로 향후 경기와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

- 경기회복세 지속은 고용 회복, 체감경기 개선 등의 측면 뿐 아니라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토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

⇒ 세계경기, 유가 등 국내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

②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 구조적·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제 체질 개선 및 양극화 대응 등의 노력을 착실히 추진

- 다만, 일부 과제들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관계부처·이해관계자간 갈등, 국회심의 지연 등으로 정책 추진이 지연

* 비정규직 관련 입법, 연금제도 개혁, 저출산·고령화 대책 등

- 최근 들어 국제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므로

- 개방과 경쟁의 확산 등 경제체질 강화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, 사회안전망 확충 등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

◇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·추진하여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가시화시켜 나가야 할 시점

2.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추진 계획

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금년 연간 경제운용방향의 틀*을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 등을 감안 정책방향을 재점검하여 수립

* 정책목표 :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

* 5대 과제 : 안정적인 거시환경조성, 성장잠재력 확충,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, 경제시스템 선진화,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

○ 유가, 환율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여건과 전망을 재점검

○ 상반기 정책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,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과제 발굴, 대책 마련

○ 장기 경제전망*을 토대로 고령화·저출산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

* 중장기 경제전망 및 위험요인(고령화 등)에 대한 분석·대응 작업 등을 연구기관, 전문가와 공동으로 T/F를 구성하여 진행중

② 설문조사,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초 발표할 계획

*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, 관계부처 회의, 연구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

< 부처 협조사항 >

각 부처에 “하반기 정책과제 제출요청” 공문을 기발송(5.12) 하였으며, 상반기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보완·추가 등이 필요한 과제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